

엠폭스 자문단 2개월 간 운영...백신 2만 도즈 추가 도입

당국 "해외 쿼어 통제 등 유행 가능성" 백신 접종 1차 3852명·2차 248명 참여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환자 발생 빈도는 줄었으나 꾸준히 확진자 신고가 접수되자 방역 당국이 엠폭스 감시와 예방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당국은 감염학회 위촉위원 6명과 피부병변 다빈도 진료 유관학회 추천

위원 4명 등 민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열린 첫 자문단 회의에서는 국내 치료경험 공유와 치료제 투여 기준 강화 등 엠폭스 의료진 대상 임상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후 회의에서는 확진

환자 격리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국은 6월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맞아 유럽, 미국 등 해외의 대규모 축제를 통한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미국 시카고, 태국 등에서도 엠폭스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방역 당국은 ▲해외방문 시 감염에 방수칙 준수 ▲밀접한 접촉이 예상되는 축제 등 참여 시 익명의 사람과의 피부 및 성 접촉 등 주의 ▲엠폭스 사전 예방 접종 적극

참여 ▲엠폭스 고위험군 다빈도시설에 대한 지자체 방역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6월 1주(6월4일~10일) 엠폭스 확진 환자는 총 4명으로 국내 누적 환자는 총 106명이다. 6월1주 확진자는 내국인 3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남성이다.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는 5월 3주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국은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고위험군 대상 사전 예방 접종을 지난달 8일부터 의료기관 115개소와 보건

소 16개소 등 총 131개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1차 접종자 수는 누적 3852명이며 2차 접종은 248명이 참여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능동 감시 신고는 총 120건(3.1%)으로 접종부위 붓기, 발적 등 가벼운 증상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 및 2차 접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3세대 백신 2만도즈를 추가 도입해 공급 예정이다.

최이슬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구호 외치는 어민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 '전국어민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조원대 투자 사기' 아쉬세븐 파산...청산 절차

1조원대 사기 혐의로 대표이사에게 징역이 내려진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이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6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7일 아쉬세븐의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아쉬세븐의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6월23일 까지다. 첫 번째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7월20일 오후 3시20분 서울회생법원 3별관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아쉬세븐 파산 선고는 앞서 이 회사 대표에 대해 내려진 징역형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는 2015년 7월부터 6년 간 피해자 7300여명을 속이고 약 1조1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4개월 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 번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도 "엄씨는 범행 정점에 위치해 사건을 주도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엄씨와 함께 기소된 본부장 등은 1심에서 징역 2~11년을 선고받았다. 아쉬세븐 법인은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부회장 엄모씨와 이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부회장과 이사(1심 징역 3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본부장급 2명의 형량도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줄었다. 다른 본부장의 형량도 징역 5년(1심 6년)으로 감형됐다. 다른 본부장 7명은 징역 6~11년이 유지됐다.

엄씨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월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쉬세븐 법인에 대해서도 1·2심과 동일하게 벌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뉴시스

헤어지자고? 전 여친집서 부탄가스 4통 찢고 협박...집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별 통보에 격분, 전 여자친구 집에서 가스를 유출해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가스유출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전 여자친구 B씨의 공동주택을 찾아와 공구로 찢은 부탄가스 4통을 거실·안방·옷방·화장실 앞에 던져 가스를 유출한 뒤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하던 B씨에게서 이별을 통보 받

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이별을 이유로 가스를 유출하고 협박했다. 공동주택에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초범인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선욱기자

반주하고 집까지 택시 운전 50대 기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까지 영업을 택시를 운전한 50대 택시기사가 시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6)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남구 봉선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대동 자신의 아파트까지 회사 영업용 택시를 몰고 2.8km 운

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비틀거리며 택시에 오른 것을 본 한 시민이 그를 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한 시민에 대해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는 한편 A씨를 대상으로 음주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운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